



전주 중화산2동 새마을협의회 등, 화장지 기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전덕일), 새마을 부녀회(회장 오현순)는 지역의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화장지 25팩(3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은둔형 중·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중화산2동 주민센터를 통해 25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마을협의회 전덕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웃는 중화산2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 부녀회 오현순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중화산2동 관계자는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무주bantbul시니어클럽, 장학금 500만원 기탁

무주bantbul시니어클럽이 19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2011년부터 15년째 운영 중인 ‘정정사업단’ 참여 어르신들의 뜻을 모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정사업단’에서는 4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 공공기관 등지에서 청소 용역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노력해서 얻은 수익을 손녀·손자뿐 되는 학생들 뒷바라지에 쓰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업회사법인 신화, 무주군 장학금 300만원 기탁

농업회사법인 (유)신화가 지난 19일 (재)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신화는 2022년부터 매년 장학금(3백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권주봉 대표는 “지역사회와 결을 함께 하는 법인으로서 미력하나마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무주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백구면 주민자치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 약 400포기를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배추를 재배하고 손질해 양념 준비하는 등 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장 기간 동안 위원들이 새벽부터 모여 절임, 양념 배합, 버무리기까지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며 정성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한국특장차협회와 백구특장차단지협의회가 후원으로 동참해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래 위원장은 “신경 쓸 일도 많고 몸은 조금 고되지만, 김장을 기다리던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평화통일 지혜 모은다’

민주평통 전주 제22기 공식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회장 이강실)가 제22기 출범식을 열고 향후 2년간의 평화통일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전주시 협의회는 19일 오전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유향검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영복 전북 부의장과 자문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한 제22기 전주시 협의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목표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정책건의, 국민 참여형 통일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출범식은 국민외교와 내빈소개로 시작해 대형 기관장과 협의회장의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집임 회장단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되며 제22기 활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하재관 제22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기수 동



안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힘써준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서 이강실 협의회장은 “시민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령해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선정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안 건의, 협의회 임원 인준 기타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임원 선출 등 회의 진행은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질서 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어 주목되었다. /오만호 기자

동원페이퍼,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 연탄 1100장 기부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정읍 지역 기업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동원페이퍼(주)(대표 이복진) 정읍공장은 지난 18일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 연탄 1100장을 기탁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원페이퍼가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직원 20명이 참여해 100만원 상당의 연탄을 장애인 두 가정에 손수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연탄을 전달받은 한 장애인 가정은 “겨울이 다가오면 늘 난방비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연탄을 배달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된다”며 “덕분에 올겨울은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종철 정읍공장장은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주변의 어려움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는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직접 배달 봉사까지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은행, 군산 다음세대학교 ‘JB희망의 공부방 214호’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군산시 다음세대학교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4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세대학교는 2017년 개교한 다문화 대안학교로 초·중·고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진학까지 연계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 아주노동자 자녀 등 8개국 출신 28명의 아동이 재학 중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북은행은 학생들이 교재와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사물함을 신규로 교체, 교재와 학습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서가를 지원했다. 또한 음악수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악기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도 새롭게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현석 군산시 복지교육국장, 오해미 다음세대학교 교장, 전상



익 전북은행 행장, 이해운 수송동지점장, 이승훈 군산시 청영업장장 등이 참석해 공부방 조성을 축하했다. /오상근 기자



무진장축협,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진안군은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19일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2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진장축협농협 임직원들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정성을 모았으며, 근무자인 진안군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담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무진장축협농협은 진안군에 본점을 둔 지역축협으로, 이번 기탁을 통해 진안군과의 상생 협력 의지와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꾸준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또한 무진장축협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는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되고, 우수한 품질로 많은 기부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답례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송제근 조합장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아 진안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남원 금동, 경로당 어르신 갈비탕 나눔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래) 관계자는 관내 ‘갈비본가’ (대표 한상용)에서 19일 휴먼시아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30명에게 정성껏 끓인 갈비탕을 대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동행정복지센터와 갈비본가가 함께하는 ‘사랑들백당 Day’의 세 번째 나눔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한 어르신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함께 먹으니 마음도 따뜻해진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상용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봉래 동장은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갈비본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송천1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주민센터(동장 전지현)는 19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나눔은 송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성경훈)와 송천1동주민센터(동장 전지현)가 함께 추진했으며 홀로 어르신,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7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과 주민센터 직원은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가정마다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건강 관리와 생활 여건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전달된 김치에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겨울철 김장김치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박경수 법무사사무소, 윤봉을 자사협에 성금 기탁

남원시 윤봉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박경수 법무사사무소(대표 박경수)로부터 성금 1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박 법무사사무소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진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경수 대표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는 주 읍장은 “매년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시는 박경수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윤봉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치리클럽, 남원 도통동에 백미 10kg 60포 기탁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8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일환으로, 공치리클럽(회장 김병호)에서 백미 10kg 6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정에 직접 배부될 예정이다. 공치리클럽은 지역 내 다양한 직업군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간 동호회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매년 정기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쳐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과 고향사랑 상호기부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과 진안의료원(원장 조백환)은 상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지방정부간 공공의료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2024년부터 매년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사업(뉴질랜드, 25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특성학교 실습용 푸드트럭 지원사업(1대)을 지원했으며, 지정 기부사업인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서큘러스, 책상, 의자) 구입지원을 목표로 2억원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